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2017 08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도행전



대항 예수교 충현교회
장로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8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8 2017 AUGUS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9교구	2 8교구	3 12교구	4 4교구	5 전교인
6 전교인	7 전교인	8 11교구	9 5교구	10 13교구	11 6교구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전교인	15 16교구	16 3교구	17 17교구	18 7교구	19 전교인
20 전교인	21 전교인	22 10교구	23 14교구	24 1교구	25 15교구	26 전교인
27 전교인 제4차 학습·세례식	28 전교인	29 18교구	30 2교구	31 11교구		

교회 주요 일정

8월 27일(주일) 제4차 학습·세례식

8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
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
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
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
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
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목사님의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게 하소서.
- ⑧ 중직자(장로·안수집사·권사)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
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⑨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
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⑩ 모든 이들이 타종교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과 구
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고 돌아오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성령이 내게 명하사

본문 사도행전 11:1~18 찬송가 210장

>>> 본문 해설

유대인 할례자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과 베드로가 무 할례자(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인 것은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이방인들의 회심 자체를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동료들의 비난에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간 자신과 고넬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소상히 밝히되,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역사를 간증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내려주신 성령이 자신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오순절의 성령과 똑같은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약속한 성령의 세례이며,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 사마리아에 내려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나 자신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생활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¹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²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³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⁵ 이르되 내가 옴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져거늘 ⁶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⁷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⁸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⁹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¹⁰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¹¹ 마침 세 사람

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¹² 성령이 내게 명하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¹³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¹⁴ 그가 나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¹⁵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¹⁶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¹⁷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¹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스데반의 일로 벌어진 박해는 많은 복음전도자들에게서 안정된 삶과 사역이 터전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오히려 부활의 증인들의 파송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출신들을 통해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들을 통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를 보고 집단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구브로 출신들이 세운 교회에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를 돕게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초신자들을 잘 양육하여 더 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각각 은사를 따라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잘 나누어 맡아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바나바는 계속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혼자 섬기기엔 역부족임을 인정하고 더 깊은 진리의 지도를 위해 사울(바울)과 동역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권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아름다운 동역을 깨달아 성령에 힘입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¹⁹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²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²¹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²²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²³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²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

께 더하여지더라 ²⁵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²⁶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²⁷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²⁸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²⁹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³⁰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의 횡포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어 처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께서 생전에 늘 따로 챙기시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더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한 일꾼이나 지체들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가장 선하고 지혜롭다고 인정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출옥시키셨습니다. 4인조로 구성된 경비대가 겹겹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 가뒀지만,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듯 베드로를 출옥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유월절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 기도 제목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¹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²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³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⁴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⁵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⁶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⁷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⁸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겹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⁹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¹⁰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

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¹¹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¹²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¹³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¹⁴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¹⁵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¹⁶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¹⁷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월절에 예수를 죽였던 종교지도자들처럼 헤롯도 유월절에 예수의 추종자 베드로를 죽음으로써 환심을 사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헤롯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돌려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사려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와 공모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왕의 연설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송하여 그를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듯 보이는 시대를 살더라도, 거짓과 불의를 옹호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중요한 사역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역자를 발굴하여 세우고 동역했습니다. 이처럼 사명과 사역에 제대로 반응하고 실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넘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 나 자신이 되도록 하소서.

¹⁸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¹⁹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²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말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

한지라 ²¹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²²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²³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²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²⁵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바울을 복음전도자로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인종적 배경과 신분이 다른 다양한 일꾼들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곧장 순종했습니다. 겨우 1년밖에 안된 교회가 가장 크게 의지하던 핵심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절대 순종이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에서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방해を受け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분별하고는 그를 눈멀게 만들어버리자, 바에수는 총독을 인도하던 자에게 인도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바에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총독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방해 중에도 성령님은 실수 없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을 믿으면서 꼭 전해야 할 때 꼭 전해야 할 말씀을 꼭 전하십니다. 언제나 성령에 의지하여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됩시다.

》》 기도 제목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깨어 있고, 사명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소서.

¹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²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³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⁴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⁵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⁶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⁷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

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⁸이 마술사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⁹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¹⁰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¹¹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¹²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던 마가 요한이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바울이 그를 다시 선교여행에 합류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볼 때, 선교 여행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여 돌아간 듯 보입니다. 이처럼 선교를 향한 열정도 좋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합류하면 동역자들과 사역에 어려움만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은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타우르스 산을 넘어 버기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만 있다고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비롯하여 술한 변수들을 무릅써야 하고, 절망적인 환경과도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넘어 투철한 사명이 없었으면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곳이면 어디든 가는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고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담대함으로 무장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¹³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¹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¹⁵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¹⁶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¹⁷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¹⁸ 광야

에서 약 사십 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¹⁹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사백오십 년간이라 ²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²¹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²²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²³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족장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들의 통치, 이후 왕정까지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그 나라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고,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외우고 익혔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을 때는 못 알아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른 채, 문자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년수와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글로 아는 예수가 아닌, 참된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²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²⁵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²⁶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²⁷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맞 안

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²⁷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²⁸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²⁹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³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시 2:1~12).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부활하시어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며, 피의 제사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반역하는 유다를 향해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경고하던 하박국 1장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 앞에서 복음 증거에는 다른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엄중한 요구가 뒤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씩음을 당하였으되 37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람을 너희에게 전

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는 안디옥 시민이 거의 다 운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하여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선한 난리,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생기가 없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받는 찬사와 인기를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즉 시기심에 사로잡혀 분별력과 평정심을 잃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믿음 없는 선민은 선민이 아니며, 참 선민은 믿음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인 고난 받는 종 메시아를, 흑암 중에 거하던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벅차서, 다시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에 사로잡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⁴⁶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⁴⁵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를 ⁴⁶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⁴⁷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⁴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⁴⁹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⁵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⁵¹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⁵²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에 대해 영접과 배척의 반응이 모두 나왔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나중에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환영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불화와 분리를 낳지 않는 복음도 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도 주께서 허락하신 동안까지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야 했지만, 그것은 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사역의 성공은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든 형통이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앓은뱅이가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단지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여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기적만을 좇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복음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도록 하소서.

¹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²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³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⁴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⁵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⁶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⁷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⁸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⁹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¹⁰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¹¹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¹²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¹³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¹⁴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¹⁵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¹⁶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¹⁷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¹⁸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 “이튿날” 더베로 향할 만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19~20절). 바울 일행은 죽을 만큼 고생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격려하며 두 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믿음에 거하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21~22절). 바울 일행은 교회를 떠나면서 각 교회마다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23절). 파송 교회인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마음을 여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역을 보고 하였습니다(24~28절).

우리 앞에도 많은 고난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 긴 믿음의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셨고 야고보와 스테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마땅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¹⁹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²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²¹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²²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²³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²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²⁵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²⁶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²⁷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²⁸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변론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의 선교 결과는 물론이고 할례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습니다(1~2절).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뤄내신 이방인 선교 여정을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3~4절). 그 일에 대해 바리새파는 할례와 율법 준수의 필수성을 강변했지만(5절), 베드로는 바리새파의 주장을 조상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한 멍에임을 말씀하였습니다(10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얻는 길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을 깨끗케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8~9절, 11절).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자를 온갖 이유를 대며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쪼먹는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 난무할 때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진지하게 대응하며 교회의 하나 됨을 지켜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²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³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⁵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

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⁶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⁷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⁸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⁹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wir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¹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행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¹¹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 육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베드로의 권면에 유대인들이 침묵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 번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증언하였습니다(12절). 바울 일행과 베드로가 현장에서 일어난 경험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설득하자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암 9:11~12)을 인용하여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고넬료 사건으로 베드로에게 드러났으며(행 10~11장), 바울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명백히 실현되었습니다(13~18절). 야고보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배려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의 멍에를 메게 하지 않으면서 구원과 관련한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율법이 금하는 네 가지 사항을 멀리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19~21절).

진리를 세우되 사랑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약한 자를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님에도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기도 제목

사랑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하나 됨을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루살렘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이방 형제들을 배려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도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의 공신력을 보증해줄 대표 2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편지 서두에서부터 그들을 ‘형제들’ 혹은 ‘우리’ 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과 애정이 담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22~24절).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25절).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인데도 그 결과를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제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성령께서 최종 의결권자임을 신뢰하며 회의에 임하였고 성령께서 하신 일과 또 예언자의 말을 통해 계시된 것을 귀 기울인 후 결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잘 마무리 될 때까지 연약한 자를 잘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체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는 자들보다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자처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 기도 제목

공동체 안의 연약한 지체들을 잘 배려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²²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²³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²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지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²⁵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²⁶⁻²⁷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

라 ²⁸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²⁹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³⁰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³¹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³²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³³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³⁴⁻³⁵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양육)과 복음 전파(전도)를 병행하던 바울은 전도한 교회를 점검하고 양육하기 위해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36절). 1차 선교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고 결국 서로 다른 일행과 함께 각각 다른 사역지로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 순풍에 돛을 단 듯 진행하던 선교사역이 본질이 아닌 문제로 대립하여 '갈라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37~40절). 할례를 반대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이방인이었다면 안 했겠지만 유대인 어머니를 둔 반쪽 유대인이었기에 그의 유대인 전도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16:1~3).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이방 교회에 전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리신 결정이었기에 존중하고 순종한 것입니다(16:4~5).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하여 갈라서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수적으로도 자라게 하셨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멎든 이 땅의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양보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³⁶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³⁷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³⁸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³⁹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⁴⁰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⁴¹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¹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로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²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³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라 ⁴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⁵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 일행의 아시아 사역도 막히고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전도자들의 준비와 열정이 부족했거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운 사람들에게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과 막힌 길도 결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섬세한 안내 표지일 뿐입니다(6~9절). 바울 일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역지로 환상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의 이 결정이 앞으로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인류사의 큰 획을 긋는 결정적 행보가 될 것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보셨습니다(9~12절).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종하며 영접케 하셨습니다. 또한 루디아의 지원을 받아 마게도냐 선교를 감당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13~15절). 귀신이 하는 말은 옳았지만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신을 여종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16~18절).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곳이 어디인지, 그 일이 쉬운지 어려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내 나라'의 일이 되고 맙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신뢰하게 하옵소서.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
 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
 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
 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
 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
 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
 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
 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
 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
 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
 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
 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
 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6 우
 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접치는 귀신 들
 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
 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
 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
 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
 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
 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여종의 주인은 종이 귀신에게서 놓여 온전해진 것을 기뻐해야 마땅함에도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소하였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는 고난도 뒤따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주님의 종들은 영광 대신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19~24절). 여종을 귀신에게서 놓아주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옥문을 여시고 매인 것이 다 벗어져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정작 자유가 필요한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로마법에는 죄수를 놓칠 경우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자신이 받을 형벌과 그로 인하여 당하게 될 수모나 불명예가 두려워서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옥문을 여신 목적은 단순한 바울과 실라의 탈출이 아니라 간수와 그 집에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25~34절).

선교사들이 당하는 고난과 매임은 사역의 지체나 실패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꾼들의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 기도 제목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⁹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²⁰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²¹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²²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²³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²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²⁵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들더라 ²⁶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²⁷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²⁸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²⁹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³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

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³¹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³²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³³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³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³⁵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³⁶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³⁷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³⁸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³⁹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⁴⁰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당도하자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을 강조하지만 그 고난의 절대성은 부인하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의 뜻을 풀어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1~3절). 회당에 속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정적인 손실을 염려하여 바울 일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를 모집하여 바울이 거하던 아손의 집을 습격하고 아손과 몇몇 그리스도인을 거짓 고소하였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맡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돈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4~13절). 베뢰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말이 맞는지 점검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만 따지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10~11절).

성경지식과 신앙 연륜을 앞세운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늘 시기심과 탐욕이 지배하게 됩니다. 베뢰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²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³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⁴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⁶발견하지 못하매 아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⁷아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⁸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⁹아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¹⁰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¹²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¹³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¹⁴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¹⁵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아덴에 각종 신전들과 제단들이 가득찬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마땅한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16절).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변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집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이방신들처럼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생존을 위해서 의지해야 할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24~25절).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장하셔서 사람이 자신을 찾아 알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26~27절). 우리 산 자들을 지으신 분이시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택하면 정한 날에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28~31절).

오늘 나에게 있는 생명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회개하도록 재촉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 회
 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
 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
 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
 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
 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
 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22 바울이 아
 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
 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
 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
 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
 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28 그는 우
 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9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
 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
 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30 이와 같이 하나님
 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1 알지 못하던 시대
 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2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
 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
 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3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
 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니 34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
 나매 35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 독심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복음을 전하는 바울 곁에는 낯선 땅에서 먼저 기다린 믿음의 가족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어려울 때도 변함 없이 동역해준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합류하자 바울은 더욱 말씀에 붙잡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1~5절).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회당 바로 옆에서 모인 가정 교회에 회당장까지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부흥을 주셨습니다(5~8절).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올수록 유대인의 위협과 협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전을 보장하시고 아직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많으니 더 머물러야 한다고 일러주시며 실제로 18개월 동안 무사히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방법으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욱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¹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²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³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⁴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⁵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⁶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⁷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⁸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⁹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¹⁰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¹¹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의 복음 전함을 못 마땅히 여기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자 일제히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인에게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로마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13절). 그들은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그 지방 백성의 환심을 살 것이라 여겨 로마의 관권을 빌려 그리스도교를 와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이 고소를 뜻밖에도 로마정부와는 상관없는 유대인 내의 종교문제로 취급하여 그의 책임 밖의 문제로 규정하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 훗날 유사한 사건(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를 이루 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갈리오를 통해 바울을 지키시고, 고린도 지역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와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며 복음을 위한 자신의 갈 길을 더욱 오롯이 걸어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듯이,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사탄의 방해공작과 핍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약속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늘 주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돌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복음 전할 때 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울처럼 오직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¹²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¹³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¹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¹⁵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¹⁶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¹⁷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¹⁸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¹⁹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²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²¹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²²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²³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을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자리를 옮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학문을 소유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임하신 성령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된 아볼로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된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가르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누구든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처음의 아볼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불완전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지식(그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세례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진리 앞에서 신앙의 년수와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아볼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영혼을 돌봄에 있어 예수님의 마음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신자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도전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게 하소서.

²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²⁵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²⁶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라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²⁷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¹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²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³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아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⁵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⁶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⁷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처음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펼치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부와 비방으로 사역의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에베소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복음 전파가 수월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치유 이적을 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렇게 따라하다가 망신과 봉변을 당했습니다. 마술과 시술의 소굴이던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생업이며 전부가 할 수 있는 값비싼 마술하는 책들이 다 불살라졌는데 그 값이 은 오만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확장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기적도 아니고, 그것을 흉내 내다 망신당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증거 될 때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악한 영과 시술이 가득한 어둠의 땅 에베소가 영적으로 정화되고 새롭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야 할 나의 마술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참 회개와 변화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⁹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¹⁰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¹¹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¹²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¹³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

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¹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¹⁵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¹⁶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¹⁷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¹⁸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¹⁹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²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에베소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둔 바울은, 이제 자신의 다음 사역을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도 보기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 준비하던 차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거기에 관련되어 생업을 꾸리는 자들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술하는 책들이 다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날이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니,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신상의 모형을 팔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던 은장색들은 생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테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업도 떨어진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온 시내를 분노와 군중심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든 요란과 혼란은 마침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혼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진리와 역동성은 반드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영적인 방해와 공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핏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와 함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위협과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²⁹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 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 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 리라 하고 ³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³¹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 이 있었으니 ³²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³³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 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³⁴ 이 바울이 에 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 도 보고 들은 것이라 ³⁵ 우리의 이 영업이 천 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 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³⁶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 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 하니 ³⁷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지라 ³⁸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 나 제자들이 말리고 ³⁹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 중 친구 된 자들의 만류로 바울은 연극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34절에 볼 수 있듯이 그곳의 분위기는 험악하였지만, 32절에서 묘사하듯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 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기도 했습니다. 어둠의 영과 사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군중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목적들을 달성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서기장의 판단과 연설로 흥분한 무리들이 누그러졌으며, 이 일을 후에 법을 집행하는 총독들에게 맡겨 적법하게 다루기로 하고 흠어졌습니다. 바울의 성공적인 에베소 사역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뒷부분을 누가는 왜 굳이 자세히 묘사하여 할애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22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얼마동안 더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진 사건처럼, 이 소요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정된 곳으로 가도록 내몬 사건이었습니다. 19장 전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에베소를 지배했던 어두운 영 아데미의 힘을 실제로 제압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전진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 가운데 구원의 주인공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항상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³²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³³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³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³⁵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³⁶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³⁷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³⁸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³⁹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⁴⁰ 오늘 아무 깨달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⁴¹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헬라(고린도)로 가서 3개월간 사역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갈 작정이었으나, 유대인의 위협 때문에 온 길을 다시 되돌아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로 가서 일행들과 합류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의 사역을 성경의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보다 상세히 언급하면 첫째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현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롬 15:25~27; 고전 16:1~4; 고후 8:1~9).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며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일주일간 머물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떠나기 전날인 마지막 날 주일에는 신자들과 떡을 떼며 밤이 늦도록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에 걸쳐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란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으로 복음의 열기가 피어오르는 드로아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사탄의 간계였습니다. 자칫 이 일로 인해 무너졌을지도 모르는 드로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한 유두고로 인해 다시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떡을 떼면서 말씀을 듣던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부활신앙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 힘들고 고단한 증인의 삶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¹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²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³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⁴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⁵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⁶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

를 머무니라 ⁷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매 ⁸우리가 모인 뿔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⁹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¹⁰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¹²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드로아를 떠나 도바로 앓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일행과 합류하여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미들레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까지 도착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여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별설교는 비장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인내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알려주셨지만 달려갈 길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에서의 투옥과 환난을 바울 스스로 예고하면서,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동안의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 사역의 핵심과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인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기록으로 시작하여(행 1:3),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때(행 14:22)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행 19:8)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 시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위험과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명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성령에 매여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⁵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⁶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⁷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⁸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⁹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¹⁰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¹¹곧 모든 검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¹²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¹³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¹⁴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¹⁵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¹⁶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¹⁷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¹⁸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¹⁹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분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 자기와 온 성도를 위해서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올 사나운 이리들을 경계했습니다(계 2:3).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며 장로들을 각성시켰습니다(딤후 1:15; 2:17; 계 2:6).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고,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계 2:1~7).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자신을 닮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스스로 벌어서 악한 사람도 와준 바울의 열심과 사역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말 대신 자신을 닮으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야 합니다.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단의 침투와 복음을 왜곡시키는 유사복음에 대응하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본 받는 자로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버리고 악한 자를 돕는 것과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 나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²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²⁹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³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³¹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³²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

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³³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³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³⁵ 법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³⁶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³⁷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³⁸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까지 와서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들과 작별한 사도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묵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던 중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 또 다시 환난을 예언 받았습니다. 이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의미도 모른 채 근심하고 말리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확고하였습니다. 4절과 11~12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어 담대히 주님의 길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오랜 시간 동안에도 마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수고한 주님의 노종은 그의 마지막 시간도 오직 성령의 매임에 따라 복음을 위한 전진으로 예루살렘과 로마와 서바나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는 그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교제 가운데 사역자를 돕고 주의 일에 함께 나아갑니다. 또한 이들의 만류와 충고를 받아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또 바울과 같은 신앙의 분별과 결단과 순종이 있습니까?

» 기도 제목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도구와 종인 되게 하소서.

¹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²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³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⁴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⁵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⁶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⁷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도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⁸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⁹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¹⁰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¹¹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¹²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¹³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¹⁴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¹⁵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¹⁶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말하였고,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로,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술한 고생을 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온전한 화합을 위해 방문한 사도 바울은 몹시 당황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며 시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묵묵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의 오해를 풀고자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제사비용을 부담하라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이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양보하고 형제들을 배려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고전 9:19~23; 롬 14:1~3).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같이 한 이유가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전달함으로 그의 이방인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동기로 행하였기에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로 인해 더 큰 오해를 사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과 로마를 향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제안과 바울의 수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혹시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선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 방법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복음을 증거 함에 있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¹⁷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¹⁸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¹⁹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말하니 ²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²¹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²²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

을 들으리니 ²³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²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²⁵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²⁶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 의식을 행함으로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출을 받기보다 오히려 다른 경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나실인을 서약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희생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는 날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에 의해 체포된 것입니다(27절). 바울을 체포한 이들은 바울을 가리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는 자,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마치 이 고소는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에 의해 받는 고소(행 6:11~14)와도 비슷하기에 스데반과 같은 고난에 바울이 처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의 뜰에 들어오지 않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찾으려고, 바울을 구타하면서 드로비모가 어디에 있느냐며 욕박질렀습니다(30절). 이후 바울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거쳐 이방인의 뜰로 끌려 나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31절). 이 순간 하나님은 로마군을 통해 바울의 죽임을 막으셨습니다(32절).

이 순간, 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하나 되어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에 드러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일지라도 자신의 신성하고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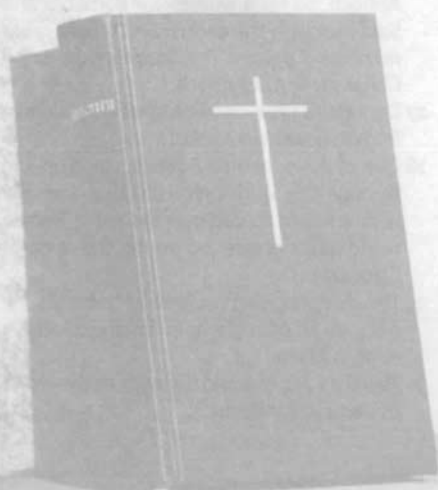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뻐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²⁷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²⁸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²⁹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³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³¹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³²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³³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³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³⁵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³⁶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으려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It is written, "I will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and a merciful father to the widow." (Psalm 146:9)

8월 1일 화요일

Acts 11:1~18

- 1 The apostles and the brothers throughout Judea heard that the Gentiles also had received the word of God.
- 2 So when Peter went up to Jerusalem, the circumcised believers criticized him
- 3 and said, "You went into the house of uncircumcised men and ate with them."
- 4 Peter began and explained everything to them precisely as it had happened:
- 5 "I was in the city of Joppa praying, and in a trance I saw a vision. I saw something like a large sheet being let down from heaven by its four corners, and it came down to where I was.
- 6 I looked into it and saw four-footed animals of the earth, wild beasts, reptiles, and birds of the air.
- 7 Then I heard a voice telling me, 'Get up, Peter. Kill and eat.'
- 8 "I replied, 'Surely not, Lord! Nothing impure or unclean has ever entered my mouth.'
- 9 "The voice spoke from heaven a second time,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 10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then it was all pulled up to heaven again.
- 11 "Right then three men who had been sent to me from Caesarea stopped at the house where I was staying.
- 12 The Spirit told me to have no hesitation about going with them. These six brothers also went with me, and we entered the man's house.
- 13 He told us how he had seen an angel appear in his house and say, 'Send to Joppa for Simon who is called Peter.
- 14 He will bring you a message through which you and all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 15 "As I began to speak,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s he had come on us at the beginning.
- 16 Then I remembered what the Lord had said: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 17 So if God gave them the same gift as he gave us, who believed in the Lord Jesus Christ, who was I to think that I could oppose God?"

18 When they heard this,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and praised God, saying, "So then, God has granted even the Gentiles repentance unto life."

8월 2일 수요일

Acts 11:19~30

- 19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in connection with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 20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 21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 22 News of this reached the ears of the church at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 23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 24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 25 Then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 26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 27 During this time some prophets came down from Jerusalem to Antioch.
- 28 One of them, named Agabus, stood up and through the Spirit predicted that a severe famine would spread over the entire Roman world. (This happened during the reign of Claudius.)
- 29 The disciples,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decided to provide help for the brothers living in Judea.
- 30 This they did, sending their gift to the elders by Barnabas and Saul.

8월 3일 목요일

Acts 12:1~17

- 1 It was about this time that King Herod arrested some who belonged to the church, intending to persecute them.
- 2 He had James, the brother of John, put to death with the sword.
- 3 When he saw that this pleased the Jews, he proceeded to seize Peter also. This happened dur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 4 After arresting him, he put him in prison, handing him over to be guarded by four squads of four soldiers each. Herod intended to bring him out for public trial after the Passover.
- 5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 6 The night before Herod was to bring him to trial, Peter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bound with two chains, and sentries stood guard at the entrance.
- 7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and a light shone in the cell.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 up. "Quick, get up!" he said, and the chains fell off Peter's wrists.
- 8 Then the angel said to him, "Put on your clothes and sandals." And Peter did so.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the angel told him.
- 9 Peter followed him out of the prison, but he had no idea that what the angel was doing was really happening; he thought he was seeing a vision.
- 10 They passed the first and second guards and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by itself, and they went through it. When they had walked the length of one street, suddenly the angel left him.
- 11 Then Peter came to himself and said, "Now I know without a doubt that the Lord sent his angel and rescued me from Herod's clutches and from everything the Jewish people were anticipating."
- 12 When this had dawned on him, he wen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also called Mark, where many people had gathered and were praying.

- 13 Peter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and a servant girl named Rhoda came to answer the door.
- 14 When she recognized Peter's voice, she was so overjoyed she ran back without opening it and exclaimed, "Peter is at the door!"
- 15 "You're out of your mind," they told her.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they said, "It must be his angel."
- 16 But Peter kept on knocking,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 17 Peter motioned with his hand for them to be quiet and described how the Lord had brought him out of prison. "Tell James and the brothers about this," he said, and then he left for another place.

8월 4일 금요일

Acts 12:18~25

- 18 In the morning, there was no small commotion among the soldiers as to what had become of Peter.
- 19 After Herod had a thorough search made for him and did not find him, he cross-examined the guards and ordered that they be executed. Then Herod went from Judea to Caesarea and stayed there a while.
- 20 He had been quarreling with the people of Tyre and Sidon; they now joined together and sought an audience with him. Having secured the support of Blastus, a trusted personal servant of the king, they asked for peace, because they depended on the king's country for their food supply.
- 21 On the appointed day Herod, wearing his royal robes, sat on his throne and delivered a public address to the people.
- 22 They shouted, "This is the voice of a god, not of a man."
- 23 Immediately, because Herod did not give praise to God,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down, and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
- 24 But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 25 When Barnabas and Saul had finished their mission, they returned from Jerusalem, taking with them John, also called Mark.

8월 5일 토요일

Acts 13:1~12

- 1 In the church at Antioch there were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and Saul.
- 2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 3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 4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went down to Seleucia and sailed from there to Cyprus.
- 5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Jewish synagogues. John was with them as their helper.
- 6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 until they came to Paphos. There they met a Jewish sorcerer and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 7 who was an attendant of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The proconsul, an intelligent man, sent for Barnabas and Saul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 8 But Elymas the sorcerer (for that is what his name means) opposed them and tried to turn the proconsul from the faith.
- 9 Then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straight at Elymas and said,
- 10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and an enemy of everything that is right! You are full of all kinds of deceit and trickery.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the right ways of the Lord?"
- 11 Now the hand of the Lord is against you. You are going to be blind, and for a time you will be unable to see the light of the sun." Immediately mist and darkness came over him, and he groped about, seeking someone to lead him by the hand.
- 12 When the proconsul saw what had happened, he believed,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8월 6일 주일

Acts 13:13~23

- 13 From Paphos, Paul and his companions sailed to Perga in Pamphylia, where John left them to return to Jerusalem.
- 14 From Perga they went on to Pisidian Antioch. On the Sabbath they entered the synagogue and sat down.
- 15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the synagogue rulers sent word to them, saying, "Brothers, if you have a message of encouragement for the people, please speak."
- 16 Standing up, Paul motioned with his hand 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listen to me!"
- 17 The God of the people of Israel chose our fathers; he made the people prosper during their stay in Egypt, with mighty power he led them out of that country,
- 18 he endured their conduct for about forty years in the desert,
- 19 he overthrew seven nations in Canaan and gave their land to his people as their inheritance.
- 20 All this took about 450 years. "After this, God gave them judges until the time of Samuel the prophet.
- 21 Then the people asked for a king, and he gave them Saul son of Kish, of the tribe of Benjamin, who ruled forty years.
- 22 After removing Saul, he made David their king. He testified concerning him: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 23 "From this man's descendants God has brought to Israel the Savior Jesus, as he promised.

8월 7일 월요일

Acts 13:24~31

- 24 Before the coming of Jesus, John preached repentance and baptism to all the people of Israel.
- 25 As John was completing his work, he said: "Who do you think I am? I am not that one. No, but he is coming after me,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 26 "Brothers, children of Abraham, and you God-fearing Gentiles, it is to us that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 27 The people of Jerusalem and their rulers did not recognize Jesus, yet in condemning him they fulfilled the words of the prophets that are read every Sabbath.
- 28 Though they found no proper ground for a death sentence, they asked Pilate to have him executed.
- 29 When they had carried out all that was written about him, they took him down from the tree and laid him in a tomb.
- 30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 31 and for many days he was seen by those who had traveled with him from Galilee to Jerusalem. They are now his witnesses to our people.

8월 8일 화요일

Acts 13:32~43

- 32 "We tell you the good news: What God promised our fathers
- 33 he has fulfilled for us, their children, by raising up Jesus. As it is written in the second Psalm: "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 34 The fac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never to decay, is stated in these words: " 'I will give you the holy and sure blessings promised to David.'
- 35 So it is stated elsewhere: " 'You will not let your Holy One see decay.'
- 36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he fell asleep; he was buried with his fathers and his body decayed.
- 37 But the one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 did not see decay.
- 38 "Therefore, my brothers, I want you to know that through Jesus the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 39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from by the law of Moses.
- 40 Take care that what the prophets have said does not happen to you:
- 41 " 'Look, you scoffers, wonder and perish,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ever believe, even if someone told you.'"
- 42 As Paul and Barnabas were leaving the synagogue, the people invited them to speak further about these things on the next Sabbath.
- 43 When the congregation was dismissed, many of the Jews and devout converts to Judaism followed Paul and Barnabas, who talked with them and urged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8월 9일 수요일

Acts 13:44~52

- 44 On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 45 When the Jews saw the crowds,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talked abusively against what Paul was saying.
- 46 Then Paul and Barnabas answered them boldly: "We had to speak the word of God to you first. Since you reject it and do not consider yourselves worthy of eternal life, we now turn to the Gentiles.
- 47 For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 48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were glad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 49 The word of the Lord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 50 But the Jews incited the God-fearing women of high standing and the leading men of the city. They stirred up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and expelled them from their region.
- 51 So they shook the dust from their feet in protest against them and went to Iconium.
- 52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8월 10일 목요일

Acts 14:1~18

- 1 At Iconium Paul and Barnabas went as usual into the Jewish synagogue. There they spoke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 believed.
- 2 But the Jews who refused to believe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 3 So Paul and Barnabas spent considerable time there, speaking boldly for the Lord, who confirmed the message of his grace by enabling them to do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 4 The people of the city were divided; some sided with the Jews, others with the apostles.
- 5 There was a plot afoot among the Gentiles and Jews, together with their leaders, to mistreat them and stone them.
- 6 But they found out about it and fled to the Lycaonian cities of Lystra and Derbe and to the surrounding country,
- 7 where they continued to preach the good news.
- 8 In Lystra there sat a man crippled in his feet, who was lame from birth and had never walked.
- 9 He listened to Paul as he was speaking. Paul looked directly at him, saw that he had faith to be healed
- 10 and called out, "Stand up on your feet!" At that, the man jumped up and began to walk.
- 11 When the crowd saw what Paul had done, they shouted in the Lycaonian language,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human form!"
- 12 Barnabas they called Zeus, and Paul they called Hermes because he was the chief speaker.
- 13 The priest of Zeus, whose temple was just outside the city, brought bulls and wreaths to the city gates because he and the crowd wanted to offer sacrifices to them.
- 14 But when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of this, they tore their clothes and rushed out into the crowd, shouting:

15 "Men, why are you doing this? We too are only men, human like you. We are bringing you good news, telling you to turn from these worthless things to the living God, who made heaven and earth and sea and everything in them.

16 In the past, he let all nations go their own way.

17 Yet he has not left himself without testimony: He has shown kindness by giving you rain from heaven and crops in their seasons; he provides you with plenty of food and fills your hearts with joy."

18 Even with these words, they had difficulty keeping the crowd from sacrificing to them.

8월 11일 금요일

Acts 14:19~28

19 Then some Jews came from Antioch and Iconium and won the crowd over. They stoned Paul and dragged him outside the city, thinking he was dead.

20 But after the disciples had gathered around him, he got up and went back into the city. The next day he and Barnabas left for Derbe.

21 They preached the good news in that city and won a large number of disciples. Then they returned to Lystra, Iconium and Antioch,

22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said.

23 Paul and Barnabas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ach church and, with prayer and fasting, committ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d put their trust.

24 After going through Pisidia, they came into Pamphylia,

25 and when they had preached the word in Perga, they went down to Attalia.

26 From Attalia they sailed back to Antioch, where they had been committ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ey had now completed.

27 On arriving there,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and reported all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and how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28 And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with the disciples.

8월 12일 토요일

Acts 15:1~11

- 1 Some men came down from Judea to Antioch and were teaching the brothers: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you cannot be saved."
- 2 This brought Paul and Barnabas into sharp dispute and debate with them. So Paul and Barnabas were appointed, along with some other believers, to go up to Jerusalem to see the apostles and elders about this question.
- 3 The church sent them on their way, and as they traveled through Phoenicia and Samaria, they told how the Gentiles had been converted. This news made all the brothers very glad.
- 4 When they came to Jerusalem, they were welcomed by the church and the apostles and elders, to whom they reported everything God had done through them.
- 5 Then some of the believers who belonged to the party of the Pharisees stood up and said, "The Gentiles must be circumcised and required to obey the law of Moses."
- 6 The apostles and elders met to consider this question.
- 7 After much discussion, Peter got up and addressed them: "Brothers, you know that some time ago God made a choice among you that the Gentiles might hear from my lips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believe.
- 8 God, who knows the heart, showed that he accepted them by giving the Holy Spirit to them, just as he did to us.
- 9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for he purified their hearts by faith.
- 10 Now then, why do you try to test God by putting on the necks of the disciples a yoke that neither we nor our fathers have been able to bear?
- 11 No!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8월 13일 주일

Acts 15:12~21

- 12 The whole assembly became silent as they listened to Barnabas and Paul telling about th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them.
- 13 When they finished, James spoke up: "Brothers, listen to me.
- 14 Simon has described to us how God at first showed his concern by taking from the Gentiles a people for himself.
- 15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in agreement with this, as it is written:
- 16 "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rebuild David's fallen tent. Its ruins I will rebuild, and I will restore it,
- 17 that the remnant of men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bear my name, says the Lord, who does these things'
- 18 that have been known for ages.
- 19 "It is my judgment, therefore,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 20 Instead we should write to them, telling them to abstain from food polluted by idols, from sexual immorality,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blood.
- 21 For Moses has been preached in every city from the earliest times and is read in the synagogues on every Sabbath."

8월 14일 월요일

Acts 15:22~35

- 22 Then the apostles and elders, with the whole church, decided to choose some of their own men and send them to Antioch with Paul and Barnabas. They chose Judas (called Barsabbas) and Silas, two men who were leaders among the brothers.
- 23 With them they sent the following letter: The apostles and elders, your brothers, To the Gentile believers in Antioch, Syria and Cilicia: Greetings.
- 24 We have heard that some went out from us without our authorization and disturbed you, troubling your minds by what they said.
- 25 So we all agreed to choose some men and send them to you with our dear friends Barnabas and Paul--
- 26 men who have risked their lives for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27 Therefore we are sending Judas and Silas to confirm by word of mouth what we are writing.

28 It seemed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not to burden you with anything beyo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29 You are to abstain from food sacrificed to idols, from blood,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You will do well to avoid these things. Farewell.

30 The men were sent off and went down to Antioch, where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and delivered the letter.

31 The people read it and were glad for its encouraging message.

32 Judas and Silas, who themselves were prophets, said much to encourage and strengthen the brothers.

33 After spending some time there, they were sent off by the brothers with the blessing of peace to return to those who had sent them.

34

35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where they and many others taught and preached the word of the Lord.

8월 15일 화요일

Acts 15:36~41

36 Some time later Paul said to Barnabas, "Let us go back and visit the brothers in all the towns where we preached the word of the Lord and see how they are doing."

37 Barnabas wanted to take John, also called Mark, with them,

38 but Paul did not think it wise to take him, because he had deserted them in Pamphylia and had not continued with them in the work.

39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that they parted company. Barnabas took Mark and sailed for Cyprus,

40 but Paul chose Silas and left, commended by the brothers to the grace of the Lord.

41 He went through Syria and Cilicia, strengthening the churches.

Acts 16:1~5

1 He came to Derbe and then to Lystra, where a disciple named Timothy lived, whose mother was a Jewess and a believer, but whose father was a Greek.

2 The brothers at Lystra and Iconium spoke well of him.

3 Paul wanted to take him along on the journey, so he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Jews who lived in that area, for they all knew that his father was a Greek.

4 As they traveled from town to town, they delivered the decisions reached by the apostles and elders in Jerusalem for the people to obey.

5 So the churches were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grew daily in numbers.

8월 16일 수요일

Acts 16:6~18

6 Paul and his companions traveled throughout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kept by the Holy Spirit from preaching the word in the province of Asia.

7 When they came to the border of Mysia, they tried to enter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would not allow them to.

8 So they passed by Mysia and went down to Troas.

9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10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we got ready at once to leave for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11 From Troas we put out to sea and sailed straight for Samothrace, and the next day on to Neapolis.

12 From there we traveled to Philippi, a Roman colony and the leading city of that district of Macedonia. And we stayed there several days.

13 On the Sabbath we went outside the city gate to the river, where we expected to find a place of prayer. We sat down and began to speak to the women who had gathered there.

- 14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from the city of Thyatira,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 15 When she an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were baptized, she invited us to her home.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she said, "come and stay at my house." And she persuaded us.
- 16 Once when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slave girl who had a spirit by which she predicted the future. She earned a great deal of money for her owners by fortune-telling.
- 17 This girl followed Paul and the rest of us, shouting,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are telling you the way to be saved."
- 18 She kept this up for many days. Finally Paul became so troubled that he turned around and said to the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At that moment the spirit left her.
- 26 Suddenly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body's chains came loose.
- 27 The jailer woke up, and when he saw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because he thought the prisoners had escaped.
- 28 But Paul shouted,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 29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rushed in and fell trembling before Paul and Silas.
- 30 He then brought them out and aske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 31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you and your household."
- 32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the others in his house.
- 33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them and washed their wounds; then immediately he and all his family were baptized.
- 34 The jailer brought them into his house and set a meal before them; he was filled with joy because he had come to believe in God--he and his whole family.

8월 17일 목요일

Acts 16:19~40

- 19 When the owners of the slave girl realized that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to face the authorities.
- 20 They brought them before the magistrates and said, "These men are Jews, and are throwing our city into an uproar
- 21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 22 The crowd joined in the attack against Paul and Silas, and the magistrates ordered them to be stripped and beaten.
- 23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 24 Upon receiving such orders, he put them in the inner cell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 25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 35 When it was daylight, the magistrates sent their officers to the jailer with the order: "Release those men."
- 36 The jailer told Paul, "The magistrates have ordered that you and Silas be released. Now you can leave. Go in peace."
- 37 But Paul said to the officers: "They beat us publicly without a trial, even though we are Roman citizens, and threw us into prison. And now do they want to get rid of us quietly? No! Let them come themselves and escort us out."
- 38 The officers reported this to the magistrates, and when they heard that Paul and Silas were Roman citizens, they were alarmed.
- 39 They came to appease them and escorted them from the prison, requesting them to leave the city.
- 40 After Paul and Silas came out of the prison, they went to Lydia's house, where they met with the brothers and encouraged them. Then they left.

8월 18일 금요일

Acts 17:1~15

- 1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Amphipolis and Apollonia, they came to Thessalonica, where there was a Jewish synagogue.
- 2 As his custom was,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and on three Sabbath days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s,
- 3 explaining and proving that the Christ had to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This Jesus I am proclaiming to you is the Christ," he said.
- 4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and joined Paul and Silas, as did a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 5 But the Jews were jealous; so they rounded up some bad characters from the marketplace, formed a mob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They rushed to Jason's house in search of Paul and Sila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 6 But when they did not find them, they dragged Jason and some other brothers before the city official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caused trouble all over the world have now come here,
- 7 and Jason has welcomed them into his house. They are all defying Caesar's decrees, saying that there is another king, one called Jesus."
- 8 When they heard this, the crowd and the city officials were thrown into turmoil.
- 9 Then they made Jason and the others post bond and let them go.
- 10 As soon as it was night, the brothers sent Paul and Silas away to Berea. On arriving there, they went to the Jewish synagogue.
- 11 Now the Berean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e Thessalonians,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 12 Many of the Jews believed, as did also a number of prominent Greek women and many Greek men.
- 13 When the Jews in Thessalonica learned that Paul was preaching the word of God at Berea, they went there too, agitating the crowds and stirring them up.

14 The brothers immediately sent Paul to the coast, but Silas and Timothy stayed at Berea.

15 The men who escorted Paul brought him to Athens and then left with instructions for Silas and Timothy to join him as soon as possible.

8월 19일 토요일

Acts 17:16~34

- 16 While Paul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he was greatly distressed to see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 17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with the Jews and the God-fearing Greeks, as well as in the marketplace day by day with those who happened to be there.
- 18 A group of Epicurean and Stoic philosophers began to dispute with him. Some of them asked, "What is this babbler trying to say?" Others remarked, "He seems to be advocating foreign gods." They said this because Paul was preach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the resurrection.
- 19 Then they took him and brought him to a meeting of the Areopagus, where they said to him, "May we know what this new teaching is that you are presenting?"
- 20 You are bringing some strange ideas to our ears, and we want to know what they mean."
- 21 (All the Athenians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spent their time doing nothing but talking about and listening to the latest ideas.)
- 22 Paul then stood up in the meeting of the Areopagus and said: "Men of Athens! I se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 23 For as I walked around and looked carefully at your objects of worship, I even found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AN UNKNOWN GOD. Now what you worship as something unknown I am going to proclaim to you.
- 24 "The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and does not live in temples built by hands.

- 25 And he is not served by human hands, as if he needed anything, because he himself gives all men life and breath and everything else.
- 26 From one man he made every nation of men, that they should inhabit the whole earth; and he determined the times set for them and the exact places where they should live.
- 27 God did this so that men would seek him and perhaps reach out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 28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s some of your own poets have said, 'We are his offspring.'
- 29 "Therefore since we are God's offspring, we should not think that the divine being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an image made by man's design and skill.
- 30 In the past God overlooked such ignorance,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 31 For he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all me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 32 When they heard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of them sneered, but others said, "We want to hear you again on this subject."
- 33 At that, Paul left the Council.
- 34 A few men became followers of Paul and believed. Among them was Dionysius, a member of the Areopagus, also a woman named Damaris, and a number of others.

8월 20일 주일

Acts 18:1~11

- 1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 2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who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all the Jews to leave Rome. Paul went to see them,
- 3 and because he was a tent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orked with them.
- 4 Every Sabbath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trying to persuade Jews and Greeks.
- 5 When Silas and Timothy came from Macedonia,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that Jesus was the Christ.
- 6 But when the Jews opposed Paul and became abusive, he shook out his clothes in protest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s! I am clear of my responsibility.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 7 Then Paul left the synagogue and went next door to the house of Titius Justus, a worshiper of God.
- 8 Crispus, the synagogue ruler, and his entire household believed in the Lord; and many of the Corinthians who heard him believed and were baptized.
- 9 One night the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 10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 11 So Paul stayed for a year and a half,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8월 21일 월요일

Acts 18:12~23

- 12 While Gallio was proconsul of Achaia, the Jews made a united attack on Paul and brought him into court.
- 13 "This man," they charged, "is persuading the people to worship God in ways contrary to the law."
- 14 Just as Paul was about to speak, Gallio said to the Jews, "If you Jews were making a complaint about some misdemeanor or serious crime, it would be reasonable for me to listen to you.
- 15 But since it involves questions about words and names and your own law--settle the matter yourselves. I will not be a judge of such things."
- 16 So he had them ejected from the court.
- 17 Then they all turned on Sosthenes the synagogue ruler and beat him in front of the court. But Gallio showed no concern whatever.

- 18 Paul stayed on in Corinth for some time. Then he left the brothers and sailed for Syria, accompanied by Priscilla and Aquila. Before he sailed, he had his hair cut off at Cenchrea because of a vow he had taken.
- 19 They arrived at Ephesus, where Paul left Priscilla and Aquila. He himself went into the synagogue and reasoned with the Jews.
- 20 When they asked him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he declined.
- 21 But as he left, he promised,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Then he set sail from Ephesus.
- 22 When he landed at Caesarea, he went up and greeted the church and then went down to Antioch.
- 23 After spending some time in Antioch, Paul set out from there and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throughout the region of Galatia and Phrygia, strengthening all the disciples.

8월 22일 화요일

Acts 18:24~28

- 24 Meanwhile a Jew named Apollos, a native of Alexandria, came to Ephesus. He was a learned man, with a thorough knowledge of the Scriptures.
- 25 He had been instructed in the way of the Lord, and he spoke with great fervor and taught about Jesus accurately, though he knew only the baptism of John.
- 26 He began to speak boldly in the synagogue. When Priscilla and Aquila heard him, they invited him to their hom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 27 When Apollos wanted to go to Achaia, the brothers encouraged him and wrote to the disciples there to welcome him. On arriving, he was a great help to those who by grace had believed.
- 28 For he vigorously refuted the Jews in public debate, proving from the Scriptures that Jesus was the Christ.

Acts 19:1~7

- 1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hrough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 2 and asked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answere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 3 So Paul asked, "Then what baptism did you receive?" "John's baptism," they replied.
- 4 Paul said, "John's baptism was a baptism of repentance. He told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 5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 6 When Paul place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 7 There were about twelve men in all.

8월 23일 수요일

Acts 19:8~20

- 8 Paul entered the synagogue and spoke boldly there for three months, arguing persuasively about the kingdom of God.
- 9 But some of them became obstinate; they refused to believe and publicly maligned the Way. So Paul left them.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had discussions daily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us.
- 10 This went on for two years, so that all the Jews and Greeks who lived in the province of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 11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 12 so that even handkerchiefs and aprons that had touched him were taken to the sick, and their illnesses were cured and the evil spirits left them.
- 13 Some Jews who went around driving out evil spirits tried to invoke the name of the Lord Jesus over those who were demon-possessed. They would say, "In the name of Jesus, whom Paul preaches, I command you to come out."
- 14 Seven sons of Sceva, a Jewish chief priest, were doing this.
- 15 (One day) the evil spirit answered them, "Jesus I know, and I know about Paul, but who are you?"

- 16 Then the man who had the evil spirit jumped on them and overpowered them all. He gave them such a beating that they ran out of the house naked and bleeding.
- 17 When this became known to the Jews and Greeks living in Ephesus, they were all seized with fear, and the name of the Lord Jesus was held in high honor.
- 18 Many of those who believed now came and openly confessed their evil deeds.
- 19 A number who had practiced sorcery brought their scrolls together and burned them publicly. When they calculated the value of the scrolls, the total came to fifty thousand drachmas.
- 20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8월 24일 목요일
Acts 19:21~31

- 21 After all this had happened, Paul decided to go to Jerusalem, passing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After I have been there," he said, "I must visit Rome also."
- 22 He sent two of his helpers, Timothy and Erastus, to Macedonia,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sia a little longer.
- 23 About that time there arose a great disturbance about the Way.
- 24 A silversmith named Demetrius, who made silver shrines of Artemis, brought in no little business for the craftsmen.
- 25 He called them together, along with the workmen in related trades, and said: "Men, you know we receive a good income from this business.
- 26 And you see and hear how this fellow Paul has convinced and led astray large numbers of people here in Ephesus and in practically the whole province of Asia. He says that man-made gods are no gods at all.
- 27 There is danger not only that our trade will lose its good name, but also that the temple of the great goddess Artemis will be discredited, and the goddess herself, who is worshiped throughout the province of Asia and the world, will be robbed of her divine majesty."
- 28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began shouting: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 29 Soon the whole city was in an uproar. The people seized Gaius and Aristarchus, Paul's traveling companions from Macedonia, and rushed as one man into the theater.
- 30 Paul wanted to appear before the crowd, but the disciples would not let him.
- 31 Even some of the officials of the province, friends of Paul, sent him a message begging him not to venture into the theater.

8월 25일 금요일
Acts 19:32~41

- 32 The assembly was in confusion: Some were shouting one thing, some another. Most of the people did not even know why they were there.
- 33 The Jews pushed Alexander to the front, and some of the crowd shouted instructions to him. He motioned for silence in order to make a defense before the people.
- 34 But when they realized he was a Jew, they all shouted in unison for about two hours: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 35 The city clerk quieted the crowd and said: "Men of Ephesus, doesn't all the world know that the city of Ephesus is the guardian of the temple of the great Artemis and of her image, which fell from heaven?
- 36 Therefore, since these facts are undeniable, you ought to be quiet and not do anything rash.
- 37 You have brought these men here, though they have neither robbed temples nor blasphemed our goddess.
- 38 If, then, Demetrius and his fellow craftsmen have a grievance against anybody, the courts are open and there are proconsuls. They can press charges.
- 39 If there is anything further you want to bring up, it must be settled in a legal assembly.
- 40 As it is, we are in danger of being charged with rioting because of today's events. In that case we would not be able to account for this commotion, since there is no reason for it."
- 41 After he had said this, he dismissed the assembly.

8월 26일 토요일

Acts 20:1~12

- 1 When the uproar had ended, Paul sent for the disciples and, after encouraging them, said good-bye and set out for Macedonia.
- 2 He traveled through that area, speaking many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 people, and finally arrived in Greece,
- 3 where he stayed three months. Because the Jews made a plot against him just as he was about to sail for Syria, he decided to go back through Macedonia.
- 4 He was accompanied by Sopater son of Pyrrhus from Berea, Aristarchus and Secundus from Thessalonica, Gaius from Derbe, Timothy also, and Tychicus and Trophimus from the province of Asia.
- 5 These men went on ahead and waited for us at Troas.
- 6 But we sailed from Philippi afte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five days later joined the others at Troas, where we stayed seven days.
- 7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spoke to the people and,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
- 8 There were many lamps in the upstairs room where we were meeting.
- 9 Seated in a window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When he was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 10 Paul went down,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and put his arms around him. "Don't be alarmed," he said. "He's alive!"
- 11 Then he went upstairs again and broke bread and ate. After talking until daylight, he left.
- 12 The people took the young man home alive and were greatly comforted.

8월 27일 주일

Acts 20:13~27

- 13 We went on ahead to the ship and sailed for Assos, where we were going to take Paul aboard. He had made this arrangement because he was going there on foot.
- 14 When he met us at Assos, we took him aboard and went on to Mitylene.
- 15 The next day we set sail from there and arrived off Kios. The day after that we crossed over to Samos, and on the following day arrived at Miletus.
- 16 Paul had decided to sail past Ephesus to avoid spending time in the province of Asia, for he was in a hurry to reach Jerusalem, if possible, by the day of Pentecost.
- 17 From Miletus, Paul sent to Ephesus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 18 When they arrived, he said to them: "You know how I lived the whole time I was with you, from the first day I came into the province of Asia.
- 19 I served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although I was severely tested by the plots of the Jews.
- 20 You know that I have not hesitated to preach anything that would be helpful to you but have taught you publicly and from house to house.
- 21 I have declared to both Jews and Greeks that they must turn to God in repentance and have faith in our Lord Jesus.
- 22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 a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 23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s are facing me.
- 24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 25 "Now I know that none of you among whom I have gone about preaching the kingdom will ever see me again.
- 26 Therefore, I declare to you today that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all men.
- 27 For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

8월 28일 월요일

Acts 20:28~38

- 28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 29 I know that after I leave, savage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and will not spare the flock.
- 30 Even from your own number men will arise and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 31 So be on your guard! Remember that for three years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 32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 33 I have not coveted anyone's silver or gold or clothing.
- 34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of mine have supplied my own needs and the needs of my companions.
- 35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must help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
- 36 When he had said this, he knelt down with all of them and prayed.
- 37 They all wept as they embraced him and kissed him.
- 38 What grieved them most was his statement that they would never see his face again. Then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8월 29일 화요일

Acts 21:1~16

- 1 After we had torn ourselves away from them, we put out to sea and sailed straight to Cos. The next day we went to Rhodes and from there to Patara.
- 2 We found a ship crossing over to Phoenicia, went on board and set sail.
- 3 After sighting Cyprus and passing to the south of it, we sailed on to Syria. We landed at Tyre, where our ship was to unload its cargo.

- 4 Finding the disciples there, we stayed with them seven days. Through the Spirit they urged Paul not to go on to Jerusalem.
- 5 But when our time was up, we left and continued on our way. All the disciples and their wives and children accompanied us out of the city, and there on the beach we knelt to pray.
- 6 After saying good-bye to each other, we went aboard the ship, and they returned home.
- 7 We continued our voyage from Tyre and landed at Ptolemais, where we greeted the brothers and stayed with them for a day.
- 8 Leaving the next day, we reached Caesarea and stayed at the house of Philip the evangelist, one of the Seven.
- 9 He had four unmarried daughters who prophesied.
- 10 After we had been there a number of days, a prophet named Agabus came down from Judea.
- 11 Coming over to us, he took Paul's belt, tied his own hands and feet with it and said, "The Holy Spirit says, 'In this way the Jews of Jerusalem will bind the owner of this belt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
- 12 When we heard this, we and the people there pleaded with Paul not to go up to Jerusalem.
- 13 Then Paul answered,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I am ready not only to be bound, but also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 14 When he would not be dissuaded, we gave up and said, "The Lord's will be done."
- 15 After this, we got ready and went up to Jerusalem.
- 16 Some of the disciples from Caesarea accompanied us and brought us to the home of Mnason, where we were to stay. He was a man from Cyprus and one of the early disciples.

8월 30일 수요일

Acts 21:17~26

- 17 When we arrived at Jerusalem, the brothers received us warmly.
- 18 The next day Paul and the rest of us went to see James, and all the elders were present.
- 19 Paul greeted them and reported in detail what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 20 When they heard this, they praised God. Then they said to Paul: "You see, brother, how many thousands of Jews have believed, and all of them are zealous for the law.
- 21 They have been informed that you teach all the Jews who live among the Gentiles to turn away from Moses, telling them not to circumcise their children or live according to our customs.
- 22 What shall we do? They will certainly hear that you have come,
- 23 so do what we tell you. There are four men with us who have made a vow.
- 24 Take these men, join in their purification rites and pay their expenses, so that they can have their heads shaved. Then everybody will know there is no truth in these reports about you, but that you yourself are living in obedience to the law.
- 25 As for the Gentile believers, we have written to them our decision that they should abstain from food sacrificed to idols, from blood,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 26 The next day Paul took the men and purified himself along with them. Then he went to the temple to give notice of the date when the days of purification would end and the offering would be made for each of them.

8월 31일 목요일

Acts 21:27~36

- 27 When the seven days were nearly over, some Jews from the province of Asia saw Paul at the temple. They stirred up the whole crowd and seized him,
- 28 shouting, "Men of Israel, help us! This is the man who teaches all men everywhere against our people and our law and this place. And besides, he has brought Greeks into the temple area and defiled this holy place."
- 29 (They had previously seen Trophimus the Ephesian in the city with Paul and assumed that Paul had brought him into the temple area.)
- 30 The whole city was aroused, and the people came running from all directions. Seizing Paul, they dragged him from the temple, and immediately the gates were shut.
- 31 While they were trying to kill him, news reached the commander of the Roman troops that the whole city of Jerusalem was in an uproar.
- 32 He at once took some officers and soldiers and ran down to the crowd. When the rioters saw the commander and his soldiers, they stopped beating Paul.
- 33 The commander came up and arrested him and ordered him to be bound with two chains. Then he asked who he was and what he had done.
- 34 Some in the crowd shouted one thing and some another, and since the commander could not get at the truth because of the uproar, he ordered that Paul be taken into the barracks.
- 35 When Paul reached the steps, the violence of the mob was so great he had to be carried by the soldiers.
- 36 The crowd that followed kept shouting, "Away with him!"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8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한구삼 편집인 | 권명옥 감발진 | 김정산 노진국 송진경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 [비매품]